편안한 건
성생활?
원츠적 욕구의 충족
자본이 방송을 통해 제시하는 행위를 맹목적으로 추종
내가 한하는 바를 알아야한다
비아그라
잘못된 습관 보충 본능을 위해 사회 질서 파괴
포타리클럽 지구 종재가 '내과의사가 진찰을 위해 비아그라를 나눠주라고 권유하는 현상을 공공연히 함
시스템의 붕괴
육구와 사회적인 규제나 합의의 충돌
교육의 부재 망터리교육
폭력의 제어가 안 됨
폭력적인 사회 폭력의 정당화 및 합리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
자기파괴
타인의 경제적 안정과 연관
경제적 안정과 연관
시간확보
자식의 미래
경제적안정
직업 수입
결혼이후의 삶
자식대화
결혼
가정 안정
친지와유대
정치적 안정
내가 한하는 바가 정부당책에 반영
발언권
언론보복
정부정책의 계획과 시행 및 결과에 대한 정보 전달
약국 일반약을 팔을 수 없다고 함
한편으로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을 추진
의사는 정체불명의 건강기능식품판매
안전하나 일반약을 자유판매약으로 전환해서 아무데서나 팔자고 주장
의사의 대표적인 약사업살정책
재고비용증가
제약회사는 보험가를 높게 책정 건강보험료로 보전 반품회피 국민과 약사우릴
약국수익성 악화
이로인한 불편과 건강보험공단 재정건전성성 악화를 약사탓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
정부에서 약가현실화를 하려고하나 약가동재제도부터 잘못
각종 시민단체에 후원하면서 상시적인 약사공격
의사들의 공격대상이게 불법금품수수로 약가인상을 부르는데 대한 번명거리
시도는 하고 있으나 미미한 편이고 그마저도 의사는 비급여로 처방하고 약사는 빈곤하게 받는다고 욕먹을
의약분업초기부터 정부홍보가 없었음
의사들의 지속적이고 완성적인 약사비난
정부에서 당일 처방전에대해 모든 약을 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
불이행. 약품유리로로 그나마 명목상 의지만 보이고 있었으나 10년넘게 760원 고정이던 수가체계에서 신격삭감
정부의 약사 말살 동조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징산 미이행 액수 5조원
4대강 사업으로 건설사 살리기와 자본토지주를 위한 토지기반사업을 하느라 어쩌이 없음
의료민영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채의 일상화. 정치권력구성원과 자본의 네트워크형성
국가재산의 사유화
TV와 조중동에 세뇌되는 바보국민
부역하는 기회주의자와 지식인층 넘침
멕커리인트라 금융투자 이상특이자들 검은 머리 외국인
재벌 자본가위주 민영화
의료민영화 의료보험료 160만원 검기처방 30만원
최후의 보루 약국몰락, 삼성은 유통과 휴먼과 보험으로 사실상 삼성공화국 완성
검찰들: 약사
공공요금상승
물가인상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
재벌 언론의 수십년에 걸친 약사 공격
주유소양 해장 약국하것으로 부동산 선정
의사는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이해
비약사 조제 상업
십으면 안 기면 함 100원 200원에 키워주고 같이 싸잡아 비난하는 바보국민
스스로 국가시스템파괴 자기파괴
한투기에 국고손실, 재벌을 위해 세금으로 환방아
방관. 의사와 동조 의약분업 유지 의지가 없음
연쇄관리는 정부의 책임
약사가 약국 문 닫고 가서 어떻게든 하라는 건 LG가 삼성의 불법행위를 직접 적발하고 징발하라는 것과 같음
부패한 사업부 이해 못하는 국회 날뛰한 바보국민 전체적으로 제어불가능시스템
대부분의 의사가 처방전 발행 댓가로 금전 요구
장부기관을 회사라고 부르는 책임감 없는 공무원
방송 에듀테인먼트 신문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서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은 일부이며 그마저도 올바른 정보인지 확인할 능력이 있는 국민은 극히 일부임
보험
보건
교육
의사
약사
종편으로 이익이 될 내용만 방송할 것임
아프기 전 정보전달에 의문
지속적인 공격으로 권위추락
의료
최적
운동
식품
보장
서민까리 알아서 증세하고 알아서 해결해야함
빈부격차극심 증세효과 적용
가행주구 황구첨정
부패만연 경쟁심화
국가로 귀속되어야할 세금이 이명박 조카의 주머니로 사유화
4대강사업으로 국고탕진
부자감세
빈익세 액커리펀드에 이자형태로 발루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함
복지는 국민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공공기관,공기업 부채 1000조
재정고갈
운영이 투명하고 밀물만한가?
부자들은 시혜로 생각
본명한 게급적 차등을 두려고함
국민의 돈을 권력을 차지한 자본가 네트워크의 소유물로 생각
복지 자체를 줄여야할 지출로 생각
국민은 더이상 주인이 아니고 세금바치고 얻어먹는 노예가 되어버렸슴
FTA 협상을 하고도 내용공개를 하지않고 부실한 문서를 질러하는 국회의원어게 화풀 넹
무언가 배워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쉽지않음
다른 것을 용인하지 않음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 소비
억압적이고 권위적이고 하염에 가득찬 사회
개인의 탈출구가 별로 없음
어가를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름
자본권력은 돈 쓸 것을 세뇌
도라아중독
정부는 어가를 활용해서 자기개발할 것을 요구
국민은 정부가 어가시간에 자본권력의 요구대로 돈 쓸 것을 요구했다고 받아들임
광고중독
자본권력의 언론세뇌를 부비한적으로 받아들이고 맹신함
자본권력은 요구하는대로 알아나서 TV보고, 조중동보고, 밥먹고 일하고, TV와 조중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하고 싸고 참
책 안 봄
본능에 충실한 짐승 노예
재고목을 한다고해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자본권력은 그것을 해소할 생각이 없음
골치아픈 정치경제 이웃의 문제 남의 문제 관심 없음
자본권력이 소비자는 왕이라고 세뇌
짜증
왕이라고 생각
백화점에서 점원 무릎 꿇리고 하자에대해 금전 요구
어디서든 논끔만한 문제도 걸고 넘어짐
대기업에대해선 아무 말 못함
같은 서민인 정치를 갈취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를 가지고 기관분업을 유지하고있는 약사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기업의 정보나 광고를 우선시함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국민대다수를 위해 존재, 스스로 계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기업과 방송과 광고는 돈이 있는 국민을 위해 존재 국가기틀에 대한 공격을 만명한이나 한 직능에 대한 공격으로 착각
약사분만이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없다고 착각
그동안 국가와 모든 제도를 이명박이 공격하고있는데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있슴
실제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더 많음
보장성 떨어지고 비번 민영보험
민영화
복잡한 민영보험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 못하고 보험적용가능한지 확인 우선
보험에서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진료
플랜에따라 보장범위 다르고 급액 다름
적용되는 방한, 약국 찾아가야하거나 일일이 전화나 인산으로 확인해야함
개인정보보호같은 건 보험회사에선 안중에도 없슴
의원지원
미비
의사의 불법금품수수 해결 못 함
약사의 한한이 전무한 실정
진료남용
약가등재제도 불합리
장부정산 안함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
보험
보장
복지
재정고갈
부자감세
4대강사업으로 국고탕진
공공기관,공기업 부채 1000조
운영이 투명하고 밀물만한가?
부자들은 시혜로 생각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함
복지는 국민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본명한 게급적 차등을 두려고함
국민의 돈을 권력을 차지한 자본가 네트워크의 소유물로 생각
복지 자체를 줄여야할 지출로 생각
국민은 더이상 주인이 아니고 세금바치고 얻어먹는 노예가 되어버렸슴
FTA 협상을 하고도 내용공개를 하지않고 부실한 문서를 질러하는 국회의원어게 화풀 넹
무언가 배워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쉽지않음
다른 것을 용인하지 않음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 소비
억압적이고 권위적이고 하염에 가득찬 사회
개인의 탈출구가 별로 없음
어가를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름
자본권력은 돈 쓸 것을 세뇌
도라아중독
정부는 어가를 활용해서 자기개발할 것을 요구
국민은 정부가 어가시간에 자본권력의 요구대로 돈 쓸 것을 요구했다고 받아들임
광고중독
자본권력의 언론세뇌를 부비한적으로 받아들이고 맹신함
자본권력은 요구하는대로 알아나서 TV보고, 조중동보고, 밥먹고 일하고, TV와 조중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하고 싸고 참
책 안 봄
본능에 충실한 짐승 노예
재고목을 한다고해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자본권력은 그것을 해소할 생각이 없음
골치아픈 정치경제 이웃의 문제 남의 문제 관심 없음
자본권력이 소비자는 왕이라고 세뇌
짜증
왕이라고 생각
백화점에서 점원 무릎 꿇리고 하자에대해 금전 요구
어디서든 논끔만한 문제도 걸고 넘어짐
대기업에대해선 아무 말 못함
같은 서민인 정치를 갈취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를 가지고 기관분업을 유지하고있는 약사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기업의 정보나 광고를 우선시함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국민대다수를 위해 존재, 스스로 계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기업과 방송과 광고는 돈이 있는 국민을 위해 존재 국가기틀에 대한 공격을 만명한이나 한 직능에 대한 공격으로 착각
약사분만이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없다고 착각
그동안 국가와 모든 제도를 이명박이 공격하고있는데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있슴
실제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더 많음
보장성 떨어지고 비번 민영보험
민영화
복잡한 민영보험
의료기관에서 바로 진료 못하고 보험적용가능한지 확인 우선
보험에서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진료
플랜에따라 보장범위 다르고 급액 다름
적용되는 방한, 약국 찾아가야하거나 일일이 전화나 인산으로 확인해야함
개인정보보호같은 건 보험회사에선 안중에도 없슴
의원지원
미비
의사의 불법금품수수 해결 못 함
약사의 한한이 전무한 실정
진료남용
약가등재제도 불합리
장부정산 안함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
보험
보장
복지
재정고갈
부자감세
4대강사업으로 국고탕진
공공기관,공기업 부채 1000조
운영이 투명하고 밀물만한가?
부자들은 시혜로 생각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함
복지는 국민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본명한 게급적 차등을 두려고함
국민의 돈을 권력을 차지한 자본가 네트워크의 소유물로 생각
복지 자체를 줄여야할 지출로 생각
국민은 더이상 주인이 아니고 세금바치고 얻어먹는 노예가 되어버렸슴
FTA 협상을 하고도 내용공개를 하지않고 부실한 문서를 질러하는 국회의원어게 화풀 넹
무언가 배워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쉽지않음
다른 것을 용인하지 않음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 소비
억압적이고 권위적이고 하염에 가득찬 사회
개인의 탈출구가 별로 없음
어가를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름
자본권력은 돈 쓸 것을 세뇌
도라아중독
정부는 어가를 활용해서 자기개발할 것을 요구
국민은 정부가 어가시간에 자본권력의 요구대로 돈 쓸 것을 요구했다고 받아들임
광고중독
자본권력의 언론세뇌를 부비한적으로 받아들이고 맹신함
자본권력은 요구하는대로 알아나서 TV보고, 조중동보고, 밥먹고 일하고, TV와 조중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하고 싸고 참
책 안 봄
본능에 충실한 짐승 노예
재고목을 한다고해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자본권력은 그것을 해소할 생각이 없음
골치아픈 정치경제 이웃의 문제 남의 문제 관심 없음
자본권력이 소비자는 왕이라고 세뇌
짜증
왕이라고 생각
백화점에서 점원 무릎 꿇리고 하자에대해 금전 요구
어디서든 논끔만한 문제도 걸고 넘어짐
대기업에대해선 아무 말 못함
같은 서민인 정치를 갈취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를 가지고 기관분업을 유지하고있는 약사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기업의 정보나 광고를 우선시함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국민대다수를 위해 존재, 스스로 계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기업과 방송과 광고는 돈이 있는 국민을 위해 존재 국가기틀에 대한 공격을 만명한이나 한 직능에 대한 공격으로 착각
약사분만이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없다고 착각
그동안 국가와 모든 제도를 이명박이 공격하고있는데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있슴
실제 언론에 노출되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더 많음
오래오래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한다
편안한 건
정치적 안정
내가 한하는 바가 정부당책에 반영
발언권
언론보복
정부정책의 계획과 시행 및 결과에 대한 정보 전달
성생활?
원츠적 욕구의 충족
가정 안정
친지와유대
자식의 미래
경제적안정
직업 수입
결혼이후의 삶
자식대화
결혼
시간확보
자본이 방송을 통해 제시하는 행위를 맹목적으로 추종
내가 한하는 바를 알아야한다
육구와 사회적인 규제나 합의의 충돌
경제적 안정과 연관
타인의 경제적 안정과 연관
교육의 부재 망터리교육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
자기파괴
비아그라
폭력의 제어가 안 됨
잘못된 습관 보충 본능을 위해 사회 질서 파괴
폭력적인 사회 폭력의 정당화 및 합리화
포타리클럽 지구 종재가 '내과의사가 진찰을 위해 비아그라를 나눠주라고 권유하는 현상을 공공연히 함
시스템의 붕괴
약국 일반약을 팔을 수 없다고 함
한편으로 일반약의 전문약 전환을 추진
의사는 정체불명의 건강기능식품판매
안전하나 일반약을 자유판매약으로 전환해서 아무데서나 팔자고 주장
의사의 대표적인 약사업살정책
재고비용증가
제약회사는 보험가를 높게 책정 건강보험료로 보전 반품회피 국민과 약사우릴
약국수익성 악화
이로인한 불편과 건강보험공단 재정건전성 악화를 약사탓으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
정부에서 약가현실화를 하려고하나 약가동재제도부터 잘못
각종 시민단체에 후원하면서 상시적인 약사공격
의사들의 공격대상이게 불법금품수수로 약가인상을 부르는데 대한 번명거리
시도는 하고 있으나 미미한 편이고 그마저도 의사는 비급여로 처방하고 약사는 빈곤하게 받는다고 욕먹을
의약분업초기부터 정부홍보가 없었음
의사들의 지속적이고 완성적인 약사비난
정부에서 당일 처방전에대해 모든 약을 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
불이행. 약품유리로로 그나마 명목상 의지만 보이고 있었으나 10년넘게 760원 고정이던 수가체계에서 신격삭감
정부의 약사 말살 동조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징산 미이행 액수 5조원
4대강 사업으로 건설사 살리기와 자본토지주를 위한 토지기반사업을 하느라 어쩌이 없음
의료민영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패한 사업부 이해 못하는 국회 날뛰한 바보국민 전체적으로 제어불가능시스템
대부분의 의사가 처방전 발행 댓가로 금전 요구
장부기관을 회사라고 부르는 책임감 없는 공무뭔
방관. 의사와 동조 의약분업 유지 의지가 없음
연쇄관리는 정부의 책임
약사가 약국 문 닫고 가서 어떻게든 하라는 건 LG가 삼성의 불법행위를 직접 적발하고 징발하라는 것과 같음